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48
DEC 30 2022

발간년월 2022년 12월 30일(통권 제24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2023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3~5% 증가 전망
- 러 극동지역 수산물,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
- 2022년 카스피 해 연안국 주요 협력 추진 동향

전문가 칼럼

- 코카서스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 경쟁과 상호 의존

주요 통계

- 2022년 10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코드 기준 40 ~ 53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코드 기준 47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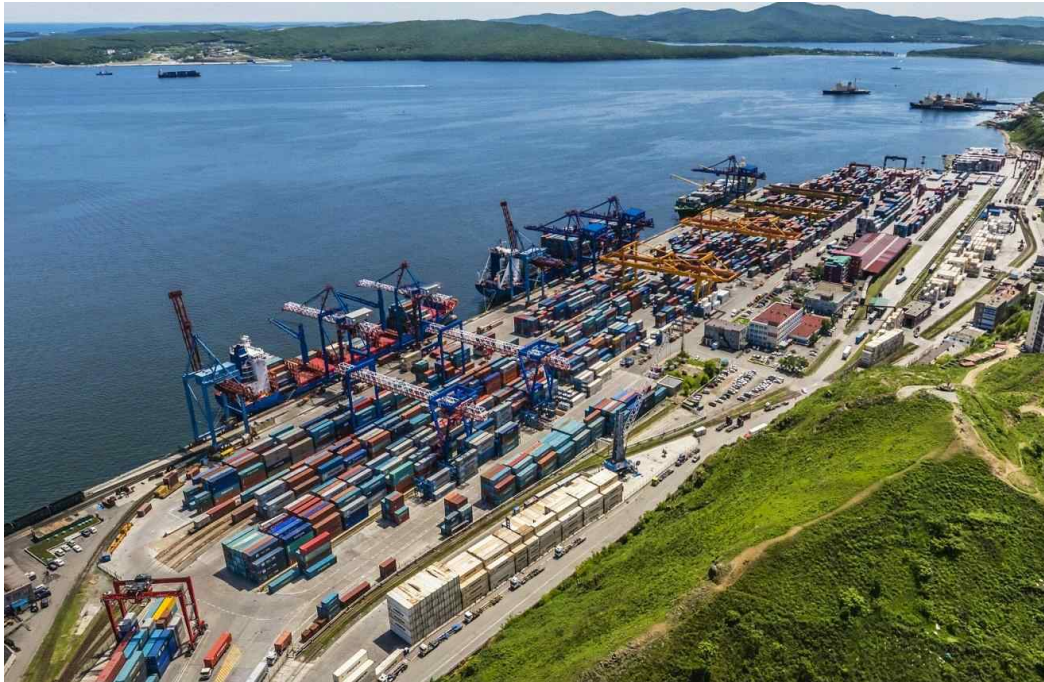


주요 동향



2023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3~5% 증가 전망

그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전경



자료: <https://perevozka24.ru/pages/osobennosti-perevozki-gruzov-na-dalnem-vostoke>

■ 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 북서 방향 화물 증대 등으로 러 항만 물동량 증가 기대

- 러시아 항만협회 세릭 주수포프(Serik Zhusupov) 이사는 최근 열린 제20회 운송 서비스 시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음
- 주수포프 이사에 따르면, 2022년 최종 물동량이 2021년 달성 지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서 해역 내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 하락, △카스피해 유역의 물동량의 하락세, △극동 지역 화물 적체 문제 등의 현상이 나타나긴 했으나,
-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극동 해역 화물 환적량, △해역 사이의 물동량 재분배,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이하 INSTC) 개발에 따른 카스피해 유역의 긍정적 미래 전망 등으로 인해 2022년 연말에는 긍정적인 물동량 수치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INSTC는 러시아, 이란, 인도가 주축이 되어 수로·철도 등을 통해 지역을 연결하는 복합운송로 구축 계획으로, 2000년에 러-이란-인도 간 회랑 건설 관련 3자 협정이 체결됨. 이 회랑 건설 구축 사업은 인도, 이란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유럽향 화물운송 흐름을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해상운송 노선이 아닌 러시아를 거치는 육상운송 노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또한, 주수포프 이사는 대리제재로 인한 국제 운송 문제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획된 러시아 전체 해역의 항만 투자 프로젝트는 지속 이행되고 있고, 대외무역, 일반 운송 및 연안 운송 등을 위한 화물 환적 수요 대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이 같은 2022년의 긍정적인 흐름이 △재조정된 해상 물동량 안정화, △INSTC 개발로 인한 북서지역 화물 운송의 새로운 가능성, △해상 운송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 제거 조치 시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러시아 전 지역의 항만 물동량이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러 극동지역 수산물,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

■ 프리모리예 및 사할린 수산물, 인도네시아중국북한 등 아시아 국가 수출량 증가

- 러시아 농업감독청(Rosselkhoznadzor)의 프리모리예 지방(Primorsky Krai) 지역 간 운영 부서의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98만 7,216톤에 달하는 수산물과 1만 9,150 묶음 포장 분량의 수산물이 수출된 것으로 신고되었음
- 2022년 프리모리예와 사할린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수산물은 약 5배 증가했으며, 북한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4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인도네시아로 나간 수산물 수출 물량은 2022년의 경우 2,956톤이 신고되었는데, 이는 2021년에 신고된 600톤의 수출량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임
-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으로 수출된 극동 러시아産(산) 수산물은 4,696톤을 기록했는데, 이 같은 수치 역시 2021년 수출량 1,252톤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한 것임
- 그 밖에, 2022년 연초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33만 9,097톤, 태국으로의 수출량이 4,164톤에 달하여 각각 1.3배 가량 확대되었으며, 아프리카 가나로는 3,587톤(3.2배 증가), 아시아 베트남으로는 3,874톤(1.2배) 가량 수출된 것으로 신고됐음
- 또한, 2022년 초부터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과 사할린 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나이지리아 및 기타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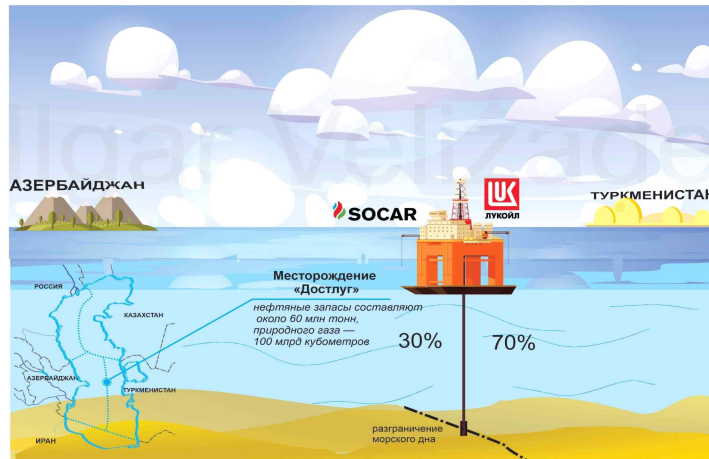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astv.ru/news/politics/2022-12-01-shest-stran-mira-uelichili-zakupki-ryby-s-sahalina-i-primor-ya> (2022.12.20. 검색)

2022년도 카스피 해 연안국 주요 협력추진 동향

그림. 도스틀루그 유전·가스전 지대



자료: <https://denizxeber.az/2022/12/13/bu-il-italiya-az-c9%99rbaycandan-10-mlrd-kubmetr-c9%999-yaxin-qaz-alacaq/>

■ 카자흐스탄 : 1월~10월 악타우(Aktau)항만 물동량, 작년동기 대비 7% 상승^{a)}

- 위 기간 동안 카작 악타우 항만에서 처리한 화물량은 7% 상승한 총 물동량은 320만 톤을 초과했으며, 이 중 190만 톤은 석유제품(전년 대비 7% 상승)이고, 38만 5000톤은 곡물이었음. 컨테이너 화물 증가량 또한 17% 상승하여 2만 6,400TEU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운송루트(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를 이용하여 악타우 항만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가 상승한 2만 3,800TEU를 기록했음

■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 카스피 해 경계선 지역 공동 유전 개발 논의^{b)}

- 12월 7일 라시트 메레도프(Raşit Meredow)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장관은 일함 알리예프(İlham Ə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미카일 자바로프(Mikayıl Cabbarov) 경제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14일 자국 아바자 관광특구(Awaza National Tourist Zone)에서 튀르키예를 포함한 3국 정상회담과 그 전날인 13일 3개국 외무장관, 교통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들이 모인 실무진 회의 개최에 대해 언급했음
- 아울러 메레도프 장관은 양국 국경 경계선 사이에 위치한 “도스틀루그(아제르바이잔어 Dostlug/투르크멘어 Dostluk, ‘우정’을 의미)” 유전/가스전 지대의 공동 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정 준비를 위해 실무진 그룹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도스틀루그 유전·가스전 지대는 카스피해 국경 경계선 확정 전까지 양국의 분쟁지역이었으며, 양측은 각자 “캐파즈(Kəpəz, 아제르바이잔)”와 “세르다르(Serdar, 투르크메니스탄)”라고 명명한 바 있음. 이 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 사업은 2021년 1월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되었음
-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공동 유전·가스전 개발과 더불어 3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음^{c)}

■ 아제르바이잔 : 러시아 아스트라한 주 정부 및 조선소와 조선 분야 협력 활성화^{d)}

- 한편, 라우프 벨리예프(Rauf Vəliyev) 아제르바이잔 카스피 해운(ASCO) 회장은 최근 러시아 언론(news.ru)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특수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해 러시아 아스트라한(Astrakhan) 주 정부와 조선소들과의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ASCO 측은 “물론 2013년 이후 바쿠 조선소에서도 자체적인 수송 선박 및 전문 선단 구축과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러시아 아스트라한 조선소들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오랜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혁신 방안 논의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https://denizxeber.az/2022/12/01/aktau-d%C9%99niz-limaninda-kec%C9%99n-ill%C9%99-muqayis%C9%99d%C9%99-daha-cox-yuk-asirilib/> (2022.12.18. 검색)
- <https://denizxeber.az/2022/12/07/az%C9%99rbaycan-v%C9%99-turkm%C9%99nistan-x%C9%99z%C9%99r-d%C9%99nizind%C9%99-yatagi-birg%C9%99-isl%C9%99tm%C9%99k-niyy%C9%99tind%C9%99dir/> (2022.12.18. 검색)
- <https://www.middleeasteye.net/news/turkey-turkmenistan-azerbaijan-gas-europe-new-pipeline> (2022.12.18. 검색)
- <https://denizxeber.az/2022/11/25/rauf-v%C9%99liyev-asco-rusiyada-ixtisaslasdirilmis-g%C9%99mil%C9%99rin-insasi-imkanlarini-n%C9%99z%C9%99rd%C9%99n-kecirir/>



코카서스 교통·에너지 인프라 사업:경쟁과 상호 의존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1. 머리말 : 코카서스 지역의 지정학적인 구도

험준한 코카서스 산맥은 유럽과 서아시아를 구분 짓는 천연의 경계선이자 흑해와 카스피해를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한 축이었으며, 19세기 카스피해 유전 개발로 열강의 주목을 받는 자원의 보고로도 자리매김했다. 냉전 시기 코카서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국가 튀르키예, 친서구 왕정에서 신정국가로 변모한 이란에 맞서는 소련의 천연국경이었다. 그러다가 소련 해체로 1918년 독립-소련 재점령의 부침을 겪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다시 등장하면서 지역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신생 독립국들이 민족 분쟁 속에서 저마다의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동안 지역 강대국인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은 그들이 계승한 전근대의 제국들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익추구 영역인 “근외 지역(blizhnee zarubezhnye)”의 한 축이다. 이 때문에 조지아의 친 EU-나토 지향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2008년 조지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두 차례의 카라바흐 전쟁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아르메니아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참여시키는 등 양국과의 균형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아르메니아와의 협력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튀르키예는 아르메니아와의 역사 갈등과 아르메니아 주둔 러시아군의 존재에 잠재적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일명 ‘형제 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과의 혈맹 관계를 수립하며 양국을 연결하는 육로 교통회랑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 ‘튀르크 형제’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조지아를 합류시켜 트랜스 아나톨리안 파이프라인(TANAP)과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다. 한편 2000만 명 규모의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이란은 나토 국가인 튀르키예의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르메니아와의 협력 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조지아의 대립, 그리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흥국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지역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대와 유지의 국가의 생존이라는 본능적 행동에서 기인한다. 그 본능에 따라 지역 국가들은 전쟁을 벌이고, 동맹이나 기구를 조직하며 대안을 위한 에너지 및 교통망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일견 러시아-아르메니아-이란과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 블록 간의 경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교전국인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사이를 제외하고,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와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경쟁과 안보 불안 속에서도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를 보여왔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각국은 저마다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2. 러시아이란, 남북 회랑과 카스피해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구의 대러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는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국제 남북 교통 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이하 INSTC) 활성화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INSTC는 러시아를 출발, 1)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종단하는 방안, 2)러시아 아스트라한(Astrakhan) 항과 이란 안잘리(Anzali) 항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해로, 그리고 3)아제르바이잔 아스타라(Astara)-이란 라슈트(Rasht) 철도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도 뭄바이(Mumbai) 항을 연결하고 있다. 남북 회랑은 물류운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좁은 수로에서의 해상사고로 운송에 차질이 발생했던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a)}

그림1. 기존 수에즈 경유 러-인도 루트(파란색) / 남북국제교통회랑(빨간색)



자료: <https://currentaffairs.adda247.com/international-north-south-transport-corridorinstc/>

a) Д. Малыше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коридор «Север-Юг» в стратегии России // Россия и новые государства Евразии. 2021. № II (LI). с. 60-61.

사실 INSTC는 2002년 5월 러시아, 인도, 이란 3국 교통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처음 구체화되었던 개념으로, 최초 구상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무 절차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022년 7월에 이르러서야 러시아 화물 열차가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이란에 도착하며 회랑의 기능이 시작되었다. 이후 러시아발 화물은 이란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항에서 해로를 통해 인도로 수출되었다.

이 회랑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물류망 구축으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에 상호의존 관계 수립을 통한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이란 또한 환적물동량의 확대를 통한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국 모두 실용적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인도 시장과의 연결이 활성화됨으로써 서방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황의 불리함으로 인한 러시아의 이란産(산) 무인기 수입과 아울러, 유럽과 수에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물류 루트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이란과 러시아의 높아진 상호의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 아제르바이잔, 주변국과 교통 인프라 건설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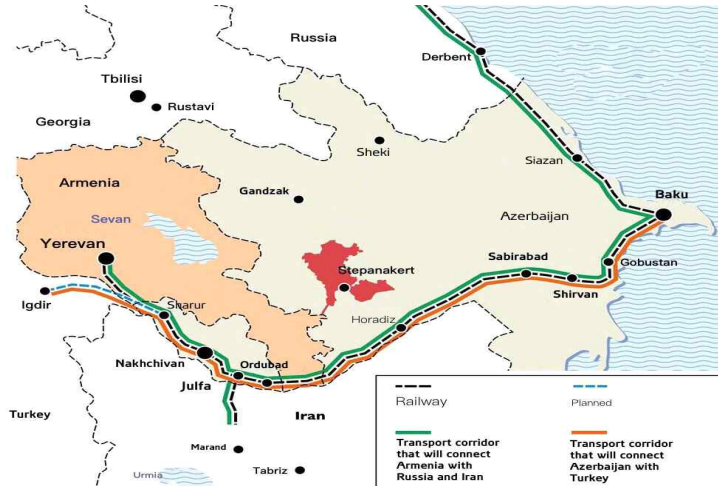
2022년 코카서스 지역에서 사실상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2차 카라바흐 전쟁에서 승리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은 트랜스 아드리아틱 파이프라인(TAP)과도 연계하여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까지 가스 수출을 확대했다. 이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안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해운과 BTK 철도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트랜스 코카시안 회랑’의 허브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카라바흐 전쟁의 결과, 2020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은 “지역 내 교통 및 통신망 복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1차 전쟁에서 패전하고, 행정력을 상실했던 남서부 본토-월경지 나히체반(Naxçıvan)-튀르키예를 연결하는 젠게주르 회랑(Zəngezur Corridor) 안을 고수하였다. 회랑 프로젝트는 아르메니아 남부 슈니크(Syunik) 주 영토를 통과하고 도로 관할권이 아제르바이잔 측에 귀속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란 또한 나토 국가인 튀르키예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는 히잡 시위를 계기로 혼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란령 아제르바이잔의 분리주의를 우려하며 회랑에 반대했다. 반대 급부로 아르메니아와 이란은 11월 1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아르메니아-이란 국경에서 남북회랑의 이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을 논의하였다. 2차 전쟁과 2022년 9월 포격전에서 아르메니아에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던 러시아도 아르메니아와 투자협력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기존 철도 노선 복구안을 제안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그림2. 젠게주르 회랑(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지지, 주황색) /

기존 철도 복원안(러시아-아르메니아-이란 지지, 녹색)



자료: <https://avim.org.tr/en/Analiz/TRANSPORTATION-PROJECTS-IN-CAUCASIA>

4. 조지아, 친서방 기조에서 러시아와 상호협력 유지

한편,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친러성향의 소수민족이었던 압하스인과 오세트인의 영역에 대한 행정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친서구 정책을 점진적으로 지속해왔다.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과의 파이프, 철도 파트너십 구축은 3국의 상호의존도를 높였으며, 인프라 안보를 위한 합동군사훈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튀르키예는 서구 국가들과 반목하는 와중에도 조지아의 나토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의 증대로 러시아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데 성공한 조지아는 흑해 지역 인프라 개발에 눈을 돌렸다.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아나클리아(Anaklia) 심해 항만 건설 신규사업자를 재선정할 정도로 조지아 정부는 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트랜스 코카시안 회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루마니아와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지아-루마니아 간 페리 노선 확대, 그리고 흑해 해저 전력케이블 및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광통신 케이블 설치사업 논의는 인프라 중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조지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아르메니아 양국 관계는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고립된 아르메니아에게 러시아와 이란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창구이며, 조지아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산 농산물은 러시아-조지아 국경의 상부 라르스(Verkhny Lars) 검문소를 통과하여 러시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2022년 6월 경 폭우로 인한 도로유실로 물류대란이 일어나자, 조지아 정부는 아르메니아에 ‘내륙국의 경유 무역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Transit Trade of Land-locked States)’을 근거로 아르메니아산 농산물을 조지아 포티(Poti)-러시아 카프카스(Kavkaz) 항 페리 노선을 통한 수출을 보장하기도 하였다. 조지아-아르메니아 우호 관계의 이면에는 비록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조지아와 러시아와의 상호의존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경쟁의 불협화음 속에서 상호의존 지속

이처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의 충격 속에서 코카서스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역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시 다른 대안을 고수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견제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특히 천연자원의 경우 수출국이자 인프라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젠게주르 회랑에 대해 러시아, 아르메니아, 이란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한편,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인프라망은 군사력과 경제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를 높이기도 한다. 자원 수입국과 경유국(transit country)의 자원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수출국 또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국가 간 관계가 경색될 경우 수입국과 경유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실시하면, 수출국 또한 이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입처를 확보하거나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망은 한번 설치되면 완전한 청산이 어려운 점도 있다. 게다가 참여국들이 각자 확보한 대안과의 관계가 다시 경색되었을 경우, 기존의 협력망이 다시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입국 및 경유국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을 시 개별 국가 또는 협력기구 간 무력 사용 등의 극단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다만 그 인프라를 활용한 수출입 규모의 변화가 관측될 뿐이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을 늘려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을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나토 가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러시아의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교전국 협상을 중재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조지아는 친서방 정책을 지속함에도 러시아와의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또한 이란과의 갈등요소가 있는데도 남북 회랑의 주요 허브로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바쿠-노보로시스크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갈등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의 충돌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회랑 복구 이슈에서 젠게주르 계획과 기존 철도 복구계획 또한 공존하며 상호 대안으로서 경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협력과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국제 인프라 사업은 대개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한 절대적인 우호 관계만이 전제 조건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곧 공동 협력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국가 간 관계의 발전은 때론 잠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동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시작되기도 한다. 2차대전 직후 프랑스가 서독의 재무장 가능성을 두려워했음에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발족시키며 EU의 기틀이 마련된 것처럼, 상호의존 관계 수립을 통해 참여국들은 기존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사업에서 생기는 차후의 갈등 또한 대화로 해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코카서스 지역 내 행위자들 또한 대립 속에서도 상호의존을 통한 갈등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협력(cooperation)은 항상 이상적인 조화(harmony)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b)}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b) Keohane, R. "After Hegemony".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2.



주요 통계



표. 2022년 10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14.4	2.1%	6.2	-2.1%	20.6	0.7%
북극해	3.1	-1%	5.9	6.4%	9	4.1%
발트해	9.4	-18.8%	12.2	12.5%	21.6	-2.3%
아조프-흑해	12.3	2%	11.3	-1.3%	23.6	0.2%
카스피해	0.3	16.7%	0.2	-40.2%	0.5	-20.1%
합계	39.5	-4.0%	35.8	3.7%	75.3	-0.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10월 기준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36950/> (2022.11.10.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38404/> (2022.12.25.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40	탄성고무, 고무및 고무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15000 - 브란스크주	0.03	0
			01-중앙연방관구	17000 - 블라디미르주	0.03	0
			01-중앙연방관구	20000 - 보로네시주	101.31	31.2
			01-중앙연방관구	24000 - 이바노프주	0	0
			01-중앙연방관구	28000 - 트베리주	15.09	1.15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250.82	67.96
			01-중앙연방관구	42000 - 리페츠크주	137.71	62.43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394.8	1366.56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04.51	15.57
			01-중앙연방관구	61000 - 라잔주	0.03	0
			01-중앙연방관구	78000 - 야로슬라브주	755.51	230.68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19.23	143.07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038.08	230.46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262.34	67.53
			02-북서연방관구	47000 - 무르만스크주	1.25	0.13
			03-남부연방관구	03000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35.79	42.82
			03-남부연방관구	18000 - 볼고그라드주	534.43	162.6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32.19	3.09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쭈네고로드스크주	305.72	87.57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르주	23.84	0.55
			04-볼가연방관구	73000 - 울라노프주	4.4	0.14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2.14	0.05
			04-볼가연방관구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0.06	0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8.67	0.25
			05-우랄연방관구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11.71	0.22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0.04	0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2.36	0.07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852.94	268.73
			06-시베리아연방관구	32000 - 케메로프주	735.66	241.3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60.53	12.3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2000 - 옴스크주	71.4	33.0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41.9	13.15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1.64	0.44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변강주	29.69	1.53
			07-극동연방관구	63995 - 사할린주	1.37	0.18
			07-극동연방관구	81000 - 부랴티야 공화국	1.58	0
			07-극동연방관구	98000 - 사하공화국	0.58	0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경주	1.01	0.03
		11	01-중앙연방관구	17000 - 블라디미르주	0.03	0
			01-중앙연방관구	20000 - 보로네시주	356.03	107.16
			01-중앙연방관구	24000 - 이바노프주	2.87	0.17
			01-중앙연방관구	28000 - 트베리주	0.44	0.03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904.37	474.76
			01-중앙연방관구	42000 - 리페츠크주	306.1	142.56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9431.29	2133.89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610.67	86.07
			01-중앙연방관구	54000 - 오를로프주	39.72	10.34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197.26	168.8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588.78	315.52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1424.45	515.86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아 공화국	0.01	0
			03-남부연방관구	03000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99.35	61.53
			03-남부연방관구	18000 - 볼고그라드주	154.24	52.9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151.22	15.5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쥬네고로드스크주	543.52	160.79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르주	20.62	0.38
			04-볼가연방관구	56000 - 펜젠주	1.45	0
			04-볼가연방관구	63000 - 사라토프주	1.2	0.03
			04-볼가연방관구	89000 - 모르도바 공화국	9.49	0.01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0.44	0.03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68.64	85.76

			05-우랄연방관구	71000 - 튜멘주	0.51	0
			05-우랄연방관구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11.44	0.14
			05-우랄연방관구	71140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튜멘주)	2.49	0.27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1.7	0.05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4.33	0.57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59.26	18.66
			06-시베리아연방관구	32000 - 케메로프주	379.28	3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460.25	89.85
			06-시베리아연방관구	52000 - 옴스크주	36.1	15.7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446	112.4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3.33	5.64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7.06	0.56
			07-극동연방관구	63993 - 사할린주	14.56	2.04
			07-극동연방관구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8.99	0.07
			07-극동연방관구	81000 - 부랴티아 공화국	1.38	0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경주	0.4	0
		12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2.28	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3.38	0.2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58.42	22.98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경주	3.94	0.26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29	0.09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0.02	0
			03-남부연방관구	18000 - 볼고그라드주	452.98	124.3
			01-중앙연방관구	20000 - 보로네시주	33.05	9.48
			04-불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666.92	153.82
			01-중앙연방관구	24000 - 이바노프주	2.08	0.04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7.28	0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63.99	137.55
			01-중앙연방관구	28000 - 트베리주	1.92	0.11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224.26	272.49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9	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32000 - 케메로프주	279.35	75.21
			04-불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르주	30.5	1.3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999.74	457.28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887.07	300.32
			01-중앙연방관구	42000 - 리페츠크주	82.51	35.64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8128.66	1825.86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333.08	18.5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98.99	10.78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36.64	3.67
			01-중앙연방관구	61000 - 라잔주	531.36	220.91
			04-불가연방관구	63000 - 사라토프주	33.73	11.88
			07-극동연방관구	63994 - 사할린주	13.77	0.5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710.24	179.42
			05-우랄연방관구	71100 - 한티-만시 자치관구	0.31	0
			04-불가연방관구	73000 - 울랴노프주	46.34	0.98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0.51	0.01
			01-중앙연방관구	78000 - 야로슬라브주	49.98	10.56
			04-불가연방관구	80000 - 바쉬코르스톤 공화국	232.75	100
			07-극동연방관구	81000 - 부랴티야 공화국	1.35	0.06
			04-불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1.35	0.07
			06-시베리아연방관구	93000 - 티바 공화국	4.13	0.15
			04-불가연방관구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0.02	0
			04-불가연방관구	97000 - 추바시 공화국	0.02	0
41	가공되지 않은 가죽 (천연 모피 제외)과 정제된 가죽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84	0.13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3.41	1.7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7.79	0.75
43	천연 및 인조 모피;모피 제품들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75	0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0.35	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53	0.12
		11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0.86	0.01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1.9	0.01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0.53	0.1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2.26	0.09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27	0.06
44	목재 및 목재 제품;숯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3.42	3.04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0.9	0.08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35.84	117.73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8.3	5.66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0.91	0.06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0.25	0.69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0.35	0.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16.84	42.89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0.09	0.01
			07-극동연방관구	63996 - 사할린주	0.81	0.37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9.37	5.67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2.23	0.34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0.44	0.59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506.45	512.82
			07-극동연방관구	63997 - 사할린주	0.58	0.15
45	코르크와 코르크 제품	1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0.01	0
			07-극동연방관구	63998 - 사할린주	0.04	0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7	0.0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0	0
48	종이 와 판지; 종이 제품, 종이와 판지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976.84	135.25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853.62	921.73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35.13	139.99
			01-중앙연방관구	70000 - 톨라주	50.57	22.68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0.06	0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9	0.93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52.27	123.05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2.6	0.38
			02-북서연방관구	47000 - 무르만스크주	21.24	0.05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1.96	0.28
			04-볼가연방관구	57000 - 페름 변경주	0.48	0.02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0	0
			05-우랄연방관구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61.1	3.34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0.04	0.04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2.75	0.2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511.28	1283.76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46.62	32.21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699.59	888.5
			07-극동연방관구	44000 - 마가단주	42.43	15.71
			07-극동연방관구	63999 - 사할린주	153.25	94.54
		11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807.24	112.3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3206.25	928.0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580.22	301.51
			01-중앙연방관구	70000 - 툴라주	95.7	42.56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95	1.5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6.07	0.48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18.44	23.66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7.31	0.86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1310	844.41
			04-볼가연방관구	73000 - 울라노프주	1.59	0.03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0.03	0
			05-우랄연방관구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44.92	2.55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07.95	168.69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336.34	1353.85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19.6	53.22
			07-극동연방관구	10000 - 아무르주	11.62	1.88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673.65	371
			07-극동연방관구	44000 - 마가단주	4.4	3.08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40.03	164.6
			07-극동연방관구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2.26	0.08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503.64	70.13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109.17	726.66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302.5	159.54
			01-중앙연방관구	61000 - 라잔주	3.72	0.15
			01-중앙연방관구	78000 - 야로슬라브주	0.82	0.2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0	0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2.9	8.43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76.27	87.22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0.03	0.06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2.56	0.38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쭈네고로드스크주	1399.41	788.26

49	인쇄된 책, 신문, 복제 및 인쇄술 산업의 기타 제품; 원고, 타이핑된 텍스트 및 설계도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0.26	0.02
			05-우랄연방관구	71000 - 튜멘주	1.9	0.1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61.79	14.7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354.7	1421.65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0.33	0.11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905.88	566.18
			07-극동연방관구	44000 - 마가단주	68.52	25.38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79.54	238.88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경주	0.14	0.02
		10	01-중앙연방관구	28000 - 트베리주	0.83	0.03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170.7	1.33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2.32	0.45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92	0.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91.13	1.29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0.74	0.01
			04-불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0.02	0
			04-불가연방관구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11.97	0.02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0.16	0.02
			06-시베리아연방관구	32000 - 케메로프주	35.04	0.7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42	0.25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902.75	0.85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7.4	0.45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1.24	0.64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0.16	0.01
			04-불가연방관구	63000 - 사라토프주	2.72	0
			04-불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0.01	0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0.42	0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0.53	0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86.08	43.6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32	0.15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569.25	2.19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0.78	0.2
			01-중앙연방관구	78000 - 야로슬라브주	1.2	0.17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8.03	0.46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9.37	0.02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72	0.17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0.01	0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1.93	0.11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5.08	0.19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7.5	3.0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1.2	15.43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51	0.16
52	면섬유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3.31	4.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55.27	7.26
			05-우랄연방관구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2.23	0.07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64	0.78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6.34	1.13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2	0.04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9.91	4.6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8.67	0.23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3.85	9.33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3.36	0.51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88	0.15
			07-극동연방관구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0.11	0.02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478.25	85.19
			01-중앙연방관구	70000 - 톨라주	88.49	36.65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22.49	4.2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7.06	1.32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5.87	1.02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85	0.13
53	기타 식물성 섬유; 종이 실과 종이 실의 직물	10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7.05	0.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3.23	0.74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62	0.08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4.25	1.06

* 주: EAEU 코드 40 ~ 53

김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11.10.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47	목재 또는 기타 섬유 셀룰로오스 물질; 재활용 가능한 종이 또는 판지(폐지, 폐품)	10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413.65	1268.84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150.12	184.59
			04-볼가연방관구	88000 - 마리엘공화국	57.24	93.6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4217.28	7291.62
		11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1900.78	3312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469.48	1371.77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5467.23	9068.51
		12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1608.42	2952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1285.86	3832.2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100.05	138.44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6329.57	11214.9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9.86	227.76
48	종이; 종이 제품, 종이와 판지	10	01-중앙연방관구	24000 - 이바노브주	0.01	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43.75	24.58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51.97	68.96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309.64	269.65
			02-북서연방관구	87000 - 코미공화국	402.61	469.95
			04-볼가연방관구	88000 - 마리엘공화국	34.88	47.94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940.13	1387.6
		11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39.48	47.1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52.65	0.99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25.9	22.92
			02-북서연방관구	87000 - 코미공화국	310.37	377.65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0.9	0.9
			04-볼가연방관구	88000 - 마리엘공화국	69.6	95.66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1063.92	1537.62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46.54	64.97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36.06	46.16

			02-북서연방관구	86000 - 카렐리아공화국	602.42	518.87
			02-북서연방관구	87000 - 코미공화국	164.29	203.18
			04-볼가연방관구	88000 - 마리엘공화국	36.21	47.79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9.63	22.11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783.8	1103.97
49	인쇄된 책, 신문, 복제 및 인쇄술 산업의 기타 제품; 원고, 타이핑된 텍스트 및 설계도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89.95	0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03	0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4.27	0.3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23	0.01
			04-볼가연방관구	73000 - 울리야놉스크주	2168.35	0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0.78	0.03
52	목화, 솜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52	0.02
53	기타 식물성 섬유; 종이 실과 종이 실의 직물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02	0

* 주: HS 코드 47~53

김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11.10. 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11.10. 검색))